

지역 소식통

고창군의회 임시회 마쳐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 제 276회 임시회가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이봉희 의원, 부위원장에 김미란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함께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 유교문화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차남준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노지교주 재배 농민들이 병충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탄저병 저항성 종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최인규 의장은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친 동료의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집행부에서는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군정에 적극 반영 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요양·정신병원 집단 감염 차단 '팔걸어'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18일과 19일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수도권 요양병원에서 병원 종사자들을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진과 방문자 마스크 착용 확인, 병원 내 직원 관리와 입원환자 관리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 대기실과 진료실, 검사실 등 주기적인 환기와 손 세정제 비치, 시설 내 방역소독 여부 등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수칙 사항을 지도 점검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지역사회와 시설 간 출입근을 반복하고 있어 감염요인이 크므로 외출·모임 자제와 타지역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단풍미락' 도시락 나왔다

정읍 대표 음식, 내장산 탐방객들 산행 중 맛볼 수 있어  
국립공원 '내 도시락을 부탁해', 전날 주문· 당일 배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정읍시 대표 음식 '단풍미락'을 가을철 내장산 산행 중에도 손쉽게 맛볼 수 있게 됐다.

시는 국립공원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통해 '단풍미락 도시락' 제공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단풍미락'은 지역 음식이 관광 자원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문가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고유 도시락을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대표 음식이다.

내장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은 하루 전날 '단풍미락 도시락'을 예약 주문

하면 산행 당일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문 방법은 간편하다. 산행 하루 전날 카카오톡에서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검색한 다음 채팅방을 통해 주문하면 된다.

주문한 도시락은 내장산 안내센터에서 배달받을 수 있으며, 식사를 마친 도시락은 하산하면서 다시 안내센터에 반납하면 된다.

도시락은 스테인리스 보온 도시락 사용함으로써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식사는 물론, 재활용이 가능해 1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한

시기에 비대면 형태의 외식 문화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락 서비스는 산행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 줌으로써 탐방객이 따로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특히 산행 중에 발생하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간 먹거리 육성과 지역 대표 음식 개발을 목표로 2016년 '귀리 떡갈비'와 '쌍화차묵은지삼합' 2개의 음식을 개발해 선보였다.

'단풍미락' 판매 업소는 지난 9월 2개소가 추가 선정되면서 총 5곳으로 늘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도시락을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밀착형 농가 체험으로 귀농·귀촌 꿈 키운다

성공사례·선진농법 홍보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사)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는 지난 17일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알리고 선진농법을 홍보하기 위해 밀착형 농가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15명의 밀착형 체험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6곳의 성공 농가에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농장을 성실하게 운영 중인 농가의 농촌 생활과 선진농법을 공유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농장별로 순회 방문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과정과 삶의 애환 보람 등 생생한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듣고 서로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농장에서 직접 키운 고구마와 태추단감, 사과, 유기농 포도 등을 수확하고 타조요리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사)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는 지난 17일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알리고 선진농법을 홍보하기 위해 밀착형 농가 체험을 진행했다.

체험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들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수한

농가들이 지역농업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이·착륙장 준공

부안군은 부안스포츠파크(행안면 체육공원길 31)내 약 400평 규모의 응급의료전용 부안응급 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준공돼 오는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명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는 첨단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 의료진이 탑승해 응급환자 처

료 및 이송을 전담하고 있다.

닥터헬기는 중증외상,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신속한 처치를 요하는 환자를 이송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닥터헬기 이·착륙장 준공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 발생 시 소

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닥터헬기 이·착륙장 운영으로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어 생존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20일 고창흥덕농협에서 고창 고들빼기 첫 출하식이 열렸다.

## 고창군 올해 첫 '고들빼기' 출하

"올해 고들빼기는 잎과 뿌리가 굵고 탄산함량이 높았다"

전북 고창군의 대표 농특산물 중 하나인 '고들빼기'가 코로나19로 지친 전국민의 면역력을 책임지기 위해 나섰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흥덕농협에서 고창 고들빼기 첫 출하식이 열렸다. 이날 출하식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 회 군의장 및 고창군의원, 백영중 흥덕농협조합장과 지역 고들빼기 농가 등이 참석했다.

고창군에선 흥덕면과 신림면 일원 27ha의 밭에서 매년 120t량의 '고들빼기'를 생산, 1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고창 고들빼기의 가장 큰 특징은 뿌리가 단단해 쉽게 짓무르지 않고, 잎이 짙으면서 부드럽고 두꺼워 고들빼기 특유의 향이 오래간다.

특히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해 혈당조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여기에 사포닌과 베타카로틴, 비타민이 풍부해 발암성 물질 억제, 위장과 소화기능 향상, 면역력 증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고창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고들빼기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해 고들빼기 경작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를 매년 3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품질 좋은 고들빼기를 생산해주신 모든 농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고창 고들빼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수산물 생산·유통현장 점검

권익현 부안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극 지원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는 20일 변산면 수산물 가공업체와 격포항 수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찾아 부안군 수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사업 및 영농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수산물 가공 업체인 대일수산물(대표 김남태)과 격포항 수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찾아 부안군 수산물 생산 및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대일수산물(대표 김남태)은 지난 1980년 수산물 냉동·냉장업을 주업으로 창업했으며 부안에서 나는 꽃게, 키조개, 갑오징어 등 각종 수산물을 냉동 및 가공해 판

매하고 있는 부안지역 내 토종 기업이다.

대일수산물(대표 김남태)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 판매가 감소하고 있어 온라인 판매 확대와 시장개척을 추진하는 등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컨설팅 및 소규모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알게 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유통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매출증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